

## 대한민국에 입국한 아프간 협력자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26일 오후 우리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도착, 코로나19 PCR 검사를 마친 뒤 공항을 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 여름 마지막 휴일...“마스크 꼭 쓰세요”

광주, 5개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  
장흥, 지방의원 등 155명 참석한  
자녀 결혼 피로연 개최 부부 감염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감염장소도 기존 식당·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불리는 장소에서 벗어나 병원과 법원, 초·중·고교 등 방역활동을 강화한 시설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남에선 50대 부부의 감염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들이 최근 개최한 자녀 결혼식 피로연에 155명이 다녀간 사실이 파악돼 장흥 지역사회가 비상에 걸렸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3955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광산구 모고등학교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 278명, 교직원 7명 등 285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 당국은 이 학생이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동선, 접촉자 등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이날 광주교법과 전남대 병원 관련 확진자도 1명씩 추가됐다.

앞서 25일에는 광주교법 관련 확진자의 자녀인 동구 모 중학교 학생이 확진됐다. 학생 226명, 교직원 37명 등 263명을 검사한 결과 지표환자를 제외한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학생 19명 등 27명을 자가격리하고 1, 3학년은 다음 달 7일까지 원격수업하도록 했다. 남구와 광산구 초등학교에서도 25일 확진자가 1명씩 나왔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모 고교 관련 확진자도 같은 날 3명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는 학생 13명을 포함해 15명으로 늘었다. 이들 동안 광주지역 학교 5개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순천 5명, 장흥 2명, 여수·해남 각 1명 등 9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 누적 확진자는 2496명이 됐다. 장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이날 장흥서 확진 판정받은 50대 부부(전남 2495, 2496번)가 지난 20일 자녀 결혼식 피로연을 야외에서 열었는데, 지방의원을 비롯해 방역목에 담긴 참석자만 155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방역지침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장사 안 되고 빚 쌓이는데 금리까지...

한은, 금리 0.25%p 인상 ... 은행 대출금리 인상 불가피  
중기·소상공인들 유동성 위기·경영부담 악화 우려 '한숨'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가계는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매출 감소에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지역경제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이자 부담과 유동성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쓰러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감소가 심화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역시 “감염병 유행으로 경기회복이 약화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빚 부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책자금 외에도 많은 대출을 받아왔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기에 9월 말 대출 만기 연장도 종료될 예정이어서 후속 조치 마련도 시급해졌다.

이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전남 중소기업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52조4844억원)보다 3조1647억원(6.0%) 증가한 55조6491억원을 기록했다. 55조 원이 넘는 중소기업 자금 수요의 3분의 1(30.9%)은 2금융권이 차지했다.

특히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잔액(38조4414억원·6월 말 기준)의 절반 이상(56.2%·21조6112억원)은 인건비·재료비 등 운영자금 명목이었다. 경영위기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1년 반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책자금 외에도 개인 대출까지 끌어다 쓰며 버텼던 탓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현상이 격화되면서 지역 가계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광주·전남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 29조2037억원·전남 27조5442억원 등 56조 7479억원으로, 지난해 말 잔액(54조6568억원)보다 2조911억원(3.8%)이나 증가했다.

올 들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본격화하면서 광주·전남에서는 2금융권 신규 대출(1조862억원)이 은행권 가계대출(1조48억원)을 앞지르기도 했다. 여기에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과 농·축협, 저축은행 등이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육취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계의 자금 유동성 위기와 경영부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은행인 광주은행 역시 올해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했고, 지난달부터는 신용대출 대상 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오는 9월1일부터는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연 소득 100%)로 제한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주거취약 청년에 1년간 월 20만원 지급한다

당정, 청년 청약 특공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60%면 보통(월소득) 120만 원 정도, 대상자는 15만~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주거급여와 전월세대출 등 정부가 각종 지원을 했지만,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반영한 것”이라며 “이러한 월세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에서는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추후 당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이 개선되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청년고용 장려금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런 청년특별대책은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학 졸업식은 없고 졸업장만 행한다 ▶6면

복스 - 어느 인류학자의 박물관 이야기 ▶16면

KIA 외국인 투수 다카하시 영입 ▶18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2021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 Splendor of Monochrome  
2021.09.01-10.31  
목포시 | 문화예술회관 일원 진도군 | 운림산방 일원  
주최 | 전라남도 JeollaNamdo 주관 | 전라 문화재단 Jeollanam-do Culture Foundation